

| | | | | | |
|--|---|-------|--|------------|-----|
| 번호: PO-EP-049 | | | | | |
| 제 목 | 직장인들의 스트레스와 건강수준간의 관련성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Health Status in Employees | | | | |
| 저 자 및 소 속 | 손동국, 고상백, 차봉석, 박종구, 장세진, 김춘배, 박준호, 현숙정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직업의학연구소 Dong Koog Son, Sang Back Koh, Bong Suk Cha, Jong Ku Park, Sei Jin Chang, Chun Bae Kim, Jun Ho Park, Sook Jung Hyun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Institute of Occupatio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 | | | |
| 분 야 | 역 학 [기타] | 발 표 자 | | 발 표 형 식 | 포스터 |
| <p>목적: 이 연구는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건강수준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와 건강수준을 비교한다. 둘째, 스트레스와 대응방법에 따른 건강수준을 비교한다. 셋째, 전체적인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본다.</p> <p>방법: 연구대상은 일부지역 제조업 근로자였으며, 최종연구 대상자는 1,453명이었다. 조사기간은 2005년 3월부터 9월까지였다. 스트레스와 건강수준 평가는 구조화된 설문지(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와 SF-36)를 이용하였다.</p> <p>결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남자 1,390명(95.7%), 여자 63명(4.3%)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8.57세(표준편차 7.6)였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이하가 764명(54.0%), 대학 이상이 651명(46.0%)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1,202명(83.6%), 미혼 및 기타가 236명(16.4%), 근무형태는 비교대가 701명(48.4%), 2교대가 748명(51.6%)으로 조사되었다.</p> <p>성별에 따른 건강수준은 신체적 기능, 사회적 기능, 활력 그리고 정신건강 항목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에 따른 건강수준에서 신체적 기능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으며, 신체적 역할제한, 감정적 역할제한, 사회적 기능, 활력 및 정신건강 영역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p>전체적인 건강수준은 남성, 높은 연령대, 미혼 및 기타, 2교대 근무자들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PWI(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여성, 낮은 연령대, 기혼자가 높았다. 대처방법은 남성, 높은 연령대, 미혼 및 기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p>PWI를 건강군, 잠재군 및 고위험군으로, 대처방법을 낮음과 높음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을 때 PWI는 건강군으로 갈수록, 대처방법은 대처높음 군이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건강수준이 높았다. 상관관계분석에서 PWI는 음의 상관관계, 대처방법은 양의 상관관계였으며, 전체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근무형태(1.439), PWI(-1.038) 그리고 대처방법(0.214)변수였다.</p> | | | | | |